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음 11월 2일) 제24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서 현장최고위원회의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정읍 개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탄소법 통과' 등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읍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전북지역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해찬 대표,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광온 최고위원, 안호영 의원, 유진섭 정읍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 홀대 더 이상 안돼”

평화당 정동영 대표,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탄소법 통과 저지 등 지적
정부·여당에 촉구하기도

민주당 정동영 대표는 “전북 달래기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전북 뭇찾기는 말로 안되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7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전북 홀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전북 뭇찾기를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의 전북 홀대 주장은 국회 예결소위에서 전북출신 위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점과 탄소법 통과 저지를 민주당에서 했다는 점, 대통령 공약인 ‘전주 제3등급 중심지’

미 이행 등이다.
먼저, 국회예결위에서 예결소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결소위에 전북 인사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또한, 탄소법은 상임위에서 무시 통과했으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전주가 제 3등급 중심지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정 대표는 “이래도 되는 것인가. 늘 자랑한다. 전북의 여당 인사들은 표를 일등으로 주는 곳이 전라북도다.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때도 일등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차별 받아도 되는 것인가?”라며, “공약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올해 9번 방문했다. 거의 정부와 여당은 부산 경남에 올인 하는 분위기다.”며, “부산 눈치 때문에 전주 제3등급 중심지가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서 현장최고위원을 갖는 이유로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야 한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강자가 참는 것은 미덕이고 아량일 수 있다. 약자가 참는 것은 비굴함이다.”며,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민주당 지도체는 최근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탄소 소재법 통과와 제3등급중심지 지정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면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탄소소재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읍 개최 현장최고위원회의서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송하진 도지사 ‘당 차원에서
제3 등급 중심지 지정 등 현안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12월 정기국회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읍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열린 27일 오전 10시 ‘전북지역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정당 간 견해가 좀 다르고 정부가 전라북도의 다른 연구소와 중복된다고 반대해왔었는데 당에서 당정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또한 “방사선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특히 의료, 바이오, 항공 우주, 에너지, 자동차 등 미래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신분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다”라며 “정부는 2025년까지 첨단과학 산업육성에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북은 탄소산업, 첨단 과학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더군다나 정읍에만 방사선 연구소를 포함해 국가 기관 3개가 자리하고 있으며, 첨단과학산업단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돼 있다”며 “농수산업 발전에도 정부가 최초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하는 등 많은 투자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탄소소재법, 당이 앞장서서 정부 설득 끌어내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히

히 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도민들이 절실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소되는 순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 재가동, 제3 등급중심지 지정,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돼야 하는 사안이다. 전라북도는 산업의 불모지”라며 “이번 계기로 전북이 새롭게 도약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상수도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자연친화적인 자족 의료 신도시 글로벌 ‘기든 시티’를 정읍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성하겠다”며 “핵심사업인 헬름 입자 암치료 연구 개발 사업, 입자치료센터 구축 등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점마을 사태 원인 ‘연초박’ 도내 반입 ‘NO’

전북도 “유사사례 발생 않도록 모든 대응책 강구”

전북도가 최근 연초박을 반입한 사업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장점마을 사태의 원인이 된 연초박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에 대한 허가기관인 시·군에 신규사업장 사업 검토시 운반처 확인 등을 통해 식물

성 잔재물로 분류돼 있는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하라는 공문을 지난 26일 시행했고, 강력한 대처를 요청

했다.
또한,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한국환경공단에서 2009년 이후 도

내 반입되는 폐기물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연초박을 반입한 4개 업체 이외에도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도내 전 업체가 전수조사 대상이며, 한국

환경공단에 요청한 결과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중 식물성잔재물(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업장, 도내에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비교·확인한 후 종합재활용업 변경 허가를 통해 연초박을 도내에서 전면 퇴출시킬 방침이다.
연초박으로 인해 도민 건강이 심각

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내 연초박 반입금지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장점마을 사태 해결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